

# 종말 - 미래의 계시

하이로 파블로 알베스 데 카르발류

## 소개

많은 사람들은 성서의 마지막 책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책으로 이해합니다. Apocalypse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주변에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의 불을 끄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계시록에 담긴 참빛이 마음을 비출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 그리고 묵시록은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계시록 1:1)라고 쓰여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잘 연구한다면,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이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결과는 그분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과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자와 편집자.

## 제1장

### 꿈은 끝을 드러낸다

"Apocalypse" 라는 이름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1.

요한계시록의 때에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예언을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는 마지막 날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마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세상 끝날까지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 12:4). 묵시록을 계시하시는 이의 눈앞에 책이 펼쳐집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으니... 인봉 중 하나를 떼고 보니...” (요한계시록 5:1, 6:1). 다니엘은 예언이라면 계시록은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전자에 보완적인 계시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이년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영은 괴로워했고, 그의 잠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 왕에게 알려려고 박수와 마술사와 마술사와 갈대아인을 불러오매 그들은 와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인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으니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찢겨지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과 상과 큰 영예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이다 왕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벌고 싶어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해결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나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한 문장도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패역한 말을 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말씀을 밝힐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나이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마술사나 마술사나 갈대아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왕은 결코 없었느니라. 왕이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 앞에 드러낼 자가 없고 이들은 사람과 함께 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자 왕은 매우 노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자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던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하였다. 그가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하여 그같이 엄하니이까 그런 다음 Arioque는 Daniel에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때를 정하여 달라고 하니 왕이 그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동료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고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였느니라. 그 비밀은 밤의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분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며,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제 당신이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렸으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진멸하라고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니라 그는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현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으로 데려오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중의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유다 포로의 자손이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다니엘 1:1-25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서 마술사와 점성가들에게 물어 그 꿈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법사들은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마술사들이

그가 상담한 점성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고 사실은 속이는 자들이었다. 그는 심지어 마술사들에게 그들이 자신에게 말하려고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현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만이 그분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니엘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왕을 알현해 달라고 요청했고, 왕은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계속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본 것과 그 해석을 너는 내게 말해줄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요구하시는 비밀은 마술사도 마술사도 점성술사도 왕께 드러낼 수 없느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세에 될 일을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니엘 2:26-28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몇 시를 가리키는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가? 실업, 강도, 살인, 지구 온난화, 사회적 불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참으로 다니엘이 언급한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곧 꿈과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장래 일에 대하여 왕께서 생각하신 것이니이다.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앞으로 있을 일을 내게 나타내셨느니라.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산 자보다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여 왕의 마음의 생각을 왕으로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께서 보시다가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거대하고 찬란한 이가 네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끔찍했습니다.” 다니엘 2:29-31

그 형상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끔찍했다'. 예고된 미래는 좋고 번영하는 쉬운 시대가 아니라 어렵고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에 흔적을 남겼고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도하는 전쟁, 기근, 폭력, 억압은 현재 시대가 예언에 나오는 동상의 모습에 대한 묘사인 “끔찍하다”와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읽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엉덩이는 놋이요 그 다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었나이다 왕께서 보고 계시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있더라.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서로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불려 흔적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꿈이다. 그리고 그 해석도 우리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32-36

끔찍한 조각상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 동상의 일부 | 구성    |
|--------|-------|
| 머리     | 금     |
| 가슴과 팔  | 은     |
| 배와 엉덩이 | 청동    |
| 다리     | 철     |
| 피트     | 철과 점토 |

다음으로 선지자 다니엘은 신상의 각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으니 사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손에 넘겨졌느니라

거하시며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다스리시니 주는 금머리사라' 다니엘 2:37, 38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점에 유의하십시오. “왕이여... 당신은 금머리이시니이다.” 다니엘이 대화하고 있던 왕은 누구였나요? 27절과 28절은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 다니엘 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은 금머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는 당시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다니엘 1:1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קים이 다스린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니엘 1장 1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자 최고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신상 머리의 상징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당신은 금 머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던 바벨론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계속합니다.

“왕의 뒤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 2:39

바벨론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빌론은 알려진 세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너희보다 열등한”, 즉 바벨론보다 열등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조각상에서는 황금색 머리 뒤에 은색 가슴과 팔이 이어져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열등한 금속이다. 현재 대회에서는 1위에 금메달이, 2위에 은메달이 수여된다. 은이 금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바벨론보다 열등한 왕국이 그녀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은으로 상징된 왕국, 즉 동상의 가슴과 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를 통해 둘째 왕국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 벨사살이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기명을 가져오라 명하였더라. 예루살렘” 단 5:2

잔치 중에 술에 취한 느부갓네살의 자손 벨사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의 신성한 기구를 가져다가 더럽히니라. 그 결과 손이 나타나 칼데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신성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해석을 하라는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느니라... 벨사살의 아들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하늘의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그 손이 그에게서 보내졌습니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계수하시고 그것을 멸하셨느니라. ... 페레스: 왕의 왕국이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5:18, 22-24, 26, 28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어 멸하셨으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나누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어느 제국이 바벨론을 장악할 것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이 죽임을 당하고 ... 그는 예순두 살쯤 되었을 때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다니엘 5:30, 31

그러므로 메대-페르시아 제국은 머리 뒤에 있는 신상의 부분, 즉 은색 가슴과 팔로 표현되는 제국입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동상의 상징을 해석했습니다.

“왕 뒤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 나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늦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39

페르시아 메디아 제국 이후에 “세 번째 왕국”이 일어나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 후 다니엘 자신에게 천사가 한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의 왕자와 다시 싸울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에 보라 그리스 왕이 오리라... 그리고 그의 부로 인해 강해진 그는 그리스 왕국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통치할 것이요” 다니엘 10:20; 11:2, 3

“내가 다시 바사 왕과 싸우리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메대 바사 제국 시대에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에 보라, 그리스 왕이 오리라.” 그리스는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사는 다음과 같이 확증해 줍니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리스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스에 관한 천사의 말,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는 다니엘의 동상에 나타난 셋째 왕국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셋째는 늦 나라라 그가 온 땅을 다스리리라”  
다니엘 2:39

동상의 배와 엉덩이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왕국인 그리스를 대표하는 동상의 세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동상의 상징을 해석합니다.

“넷째 왕국은 철처럼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부수느니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가 그것을 부수고 부수시리라.” 다니엘 2:40

분쇄한다는 것은 가루로 만들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부서지실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학대를 받는 자로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필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4-5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한복음 19:1, 2.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우리 구세주를 “분쇄”한 철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철다리로 대표되는 그리스를 잇는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의 꿈 해석을 계속합니다.

“네가 본 그 발과 발가락은 열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열마는 철로 되었으나 나라가 나뉘겠고 그러나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발가락이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은즉 그 나라가 한편으로는 강하고 한편으로는 약하리라.” 다니엘 2:41e 42

지금까지 우리는 조각상의 각 부분이 조각상의 이전 부분에 해당하는 왕국을 따르는 왕국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의 본문에서 다니엘이 묘사한 발은 신상의 다리로 표현된 뒤를 이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석류.

다니엘은 발이 “분열된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각상의 각 부분은 단 하나의 재료로 표현되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엉덩이와 배는 청동,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각 정당이 세계 제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제국만이 알려진 세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조각상의 발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은 그 발과 발가락이 열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열마는 쇠로 되었느니라.” 조각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점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언급하면서 선지자는 “이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나 이전 왕국들과 같은 세계 제국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 왕국을 구성할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유럽의 10개 야만 부족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 야만인 현재 이름 |        |
|-----------|--------|
| 앵글로색슨족    | 영어     |
| 알라만노스     | 독일인    |
| 프랭크스      | 프랑스 국민 |
| 부르고뉴      | 스위스    |
| 롬바르드족     | 이탈리아인  |
| 서고트족      | 스페인의   |
| 수에비       | 포르투갈 인 |
| 헤룰리       | -----  |
| 파괴자       | -----  |
| 동고트족      | -----  |

우리는 유럽이 항상 분열된 대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결코 세계 제국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예언대로 이 나라는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이 왕국에 관해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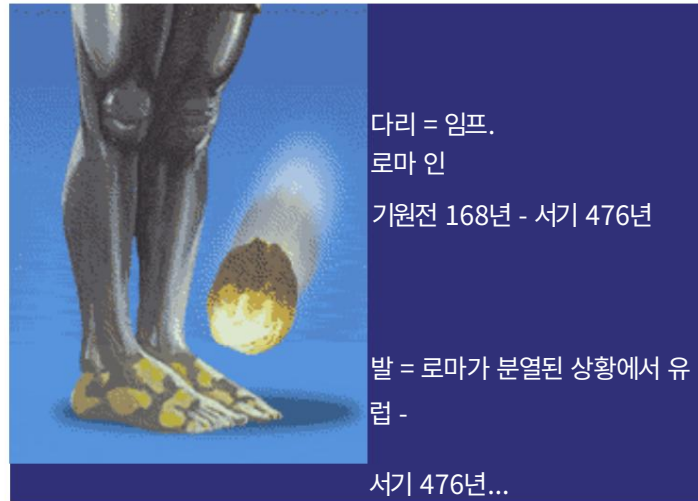
“그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으니  
그러므로 그 나라가 한편으로는 강하고 한편으로는 약하리라” 다니엘 2:42

선지자의 말은 오늘날 유럽이 어떠했고 현재도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철처럼 강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예: 영국, 독일)도 있고, 점토처럼 약한 국가(예: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상에 대한 해석이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이은 왕국들은 순서대로 서로를 따랐다. 동상의 머리로 표현된 바빌론 제국은 기원전 605년(그리스도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상의 다리로 대표되는 제4제국인 로마는 기원전 168년에 권력을 잡고 서기 47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동상의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진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동상이 예언한 왕국의 순서는 지구를 지배하고 출현한 제국의 순서에 의해 충실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이미 지나간 사건에서 상징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와 미래에 관해 예측된 사건이 똑같은 정확성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줍니다.

동상이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까지” 시대를 보여주듯이, 머리는 가장 오래된 왕국을 나타내고, 발은 마지막 시대의 왕국을 나타내고, 손가락은 지구 역사상 마지막 장면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동상이기 때문에 그의 발에는 발가락이 10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땅의 정부가 열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임을 이해합니다. 세계 정치의 막후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이 최신 정부 구조의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고 대표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로마 클럽이라는 실무 그룹에 글로벌 정치 경제 부문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로마클럽(CDR)은 그 자체로 '과학자, 교육자, 경제학자, 인문주의자, 산업가, 국제 공무원'인 100명 미만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클럽은 지역 분할과 전 세계의 통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클럽의 결론과 권고 사항은 때때로 특별하고 극비 보고서로 게시되며, 실행을 위해 권력 엘리트에게 전송됩니다. 1973년 9월 17일, 클럽은 세계 정부 시스템의 지역별 모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하나를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클럽이 세계를 "왕국"이라고 부르는 10개의 정치/경제 지역으로 나누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 Rumbo a La Ocupación Mundial, 페이지. 60, 61 (강조 및 강조 추가).

우리가 그들의 일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동상을 통해 예언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왕국"이라고 불리는 10개의 정치 경제적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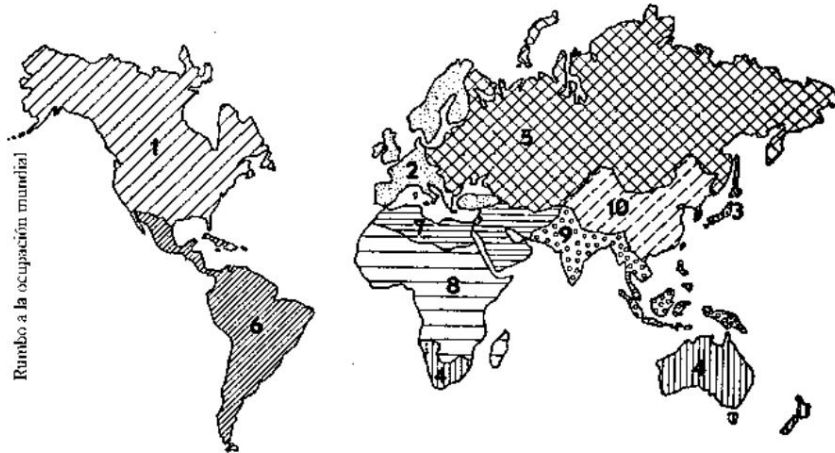


그림 - 로마 클럽에 의한 세계 분할(1973)

출처: 책 “Rumbo a la Ocupación Mundial”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왕국들 중 몇몇을 식별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의회가 있는 유럽연합(지도의 2위)과 Mercosur(6)가 그 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 열 손가락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는 이미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요구합니다. 2008년 10월 18일 오전 9시 15분 파리(AP)  
- 그 아이디어는 야심적입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미국 차기 대통령의 고문들은 연말 이전에 뉴욕에서 만나 세계 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의 윤곽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요구합니다

2008년 11월 6일에 게시됨 | André Lückman, 에이전시들과 함께

어제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gazetadopovo.com.br/mundo/conteudo.phtml?tl=1&id=825254&tit=Lideres-pedem-nova-order-mundial> - 2010년 6월 22일에 액세스함(강조 추가).

더 많은 인간

### 룰라,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설을 제안하다

AFP - 2008년 11월 11일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이 어제 로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로마.-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는 어제 로마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 조르조 나폴리타노의 영접을 받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의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 “현재의 금융 위기는 우리가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강조 추가)

## 새로운 질서의 탄생



BBC 브라질 - 2009년 3월 30일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는 평온함을 기다립니다... 화재가 거의 파괴된 후

2007년에 시작된 위기 속에서 건축가들은 이미 새로운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20개 주요 경제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주 런던에서 만나 새로운 경제 체제 창출을 시작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질서와 세계 정치를 대체합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적인 의향서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몇몇 지도자들은 이미 선진국들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G20 동료들을 수도에서 맞이하기 전 브라질과 칠레를 방문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처: BBC 브라질(강조 추가)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신세계 질서의 열 왕국은 왕들에 의해 통치될 것입니다. 이 새 정부가 수립되면 세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실 것이나 친히 영원히 서시리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뜨여져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과 같으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라.” 다니엘 2:44, 45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돌로 상징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돌은 그리스도이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4. 다니엘이 “손의 도움 없이” 던져지는 돌을 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도움 없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실 것입니다. 예언에서는 “이 왕들의 날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언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 줍니다.

“그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멸하였느니라.” 다니엘 2:44

조각상의 모든 부분이 부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조각상의 부분은 이 땅, 이 최악의 세계에서 일어날 다양한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이 죄의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리고 아무 기억도 없을 거야 지나간 일은 결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5:17

우리는 머지않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세상의 역사는 곧 끝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을 찾으러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너 준비 됐니? 당신은 주저 없이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그분께 가져갔습니까? 그분은 자비와 용서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37. 오늘 시간이 있는 동안 여러분은 기도와 그분의 말씀 연구를 통해 인도를 구하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2 장

### 다니엘 7장 - 네 짐승의 환상과 하늘 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신상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대로 역사의 사건들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우리는 역사의 모든 사건과 나라의 출현과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구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 장에서 연구한 다니엘 2장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책의 다른 장들에서 우리는 그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왕국의 계승과 멸망을 제시하는 예언을 발견합니다. 7장이 그 예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절을 읽음으로써 연구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 누워서 꿈과 환상을 눈앞에 보고 그는 즉시 그 꿈을 기록하고 모든 일의 총계를 보고하였다.” 다니엘 7:1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통치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가 이때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게 했다면, 그것은 이 정보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또한 다니엘이 자신이 본 것을 “곧 그 꿈을 기록하고 보고”했다고 알려 줍니다. 다음에 읽을 내용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아직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 환상으로 보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요동하더라. 크고 서로 다른 동물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7:2, 3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분은 다니엘이 자신이 본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이 상징적인 것처럼, 바다를 휘젓는 네 바람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남쪽.” 역대상 9:24

네 바람은 “동, 서, 북, 남”의 네 방향을 상징합니다. 네 바람이 “큰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다는 물의 큰 집합체이며, 성경은 물이 민족을 상징한다고 밝혀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얹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15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물로 이루어진 큰 바다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과 나라와 언어를 상징합니다. 대해를 휘젓는 네 바람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맞서 일어나는 민족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다를 휘젓는 바람은 국가 간의 갈등, 즉 전쟁의 시나리오를 묘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크고 서로 다른 네 마리의 동물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이 장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큰 짐승 넷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요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느니라.” 다니엘 7:16, 17

네 마리의 동물은 다음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제국의 왕을 나타냅니다.  
정복 전쟁의. 보고서에 따라 동물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즉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러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또 마음을 받았느니라. 한 남자.”

다니엘 7:4

이 상징을 통해 묘사된 왕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자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줍니다.

“왕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르시되 나라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에게 소처럼 나뭇잎을 먹게 할 것이요, 일곱 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이르리라. 동시에 느부갓네살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 못처럼 자랐느니라. 그 날이 끝나 매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총명이 내게 생겨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송축하며 영원히 살아 계시며 권세가 영원하시며 그 권세를 가지시는 자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였노라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다니엘 4:31-34

느부갓네살은 하늘로부터 선고를 받았고, 그 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못처럼 자랐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나에게 다시 이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한 번 사람과 같은 이성, 즉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서 그가 본 사자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그는 사람처럼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첫 번째 동물에 대한 묘사가 느부갓네살 왕의 특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그가 다스리는 왕국 바벨론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날개 달린 사자로 상징됩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계시 사이의 유사점

다니엘 2장에서는 최초의 세계 제국인 바벨론 왕국이 신상의 금머리로 표현되었습니다. 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이미 7장에서 바벨론 왕국은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는 사자로 대표됩니다(참조, 사 14:18; 잠 30:30; 암 3:8). 2장에서는 바벨론을 금속의 우두머리로 표현한 반면, 7장에서는 바벨론을 동물의 우두머리로 표현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두 장 모두에서 바벨론은 세계 제국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장마다 그것은 다른 상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에 나오는 동물은 2장의 금머리와 비슷한 계시입니다. 차이점은 다니엘 2장의 동상의 상징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바벨론의 세부 사항이 다니엘 7장에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에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짐승처럼 풀을 뜯고 나서 사람의 마음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장의 신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자의 “날개”의 상징을 통해서도 바벨론이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할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다니엘 2장의 상징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7장이 2장의 계시를 반복했지만 환상의 의미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계시 내용은 동일하지만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을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에 표현된 세계 제국에 대해 동일한 계시를 주셨지만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은 세부점을 추가하신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다니엘 7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계속 보니 둘째 짐승은 곰 같아서 한쪽으로 서 있는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개가 있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많이 먹어라 하더라” 고기.”

다니엘 7:5

인용된 구절은 선지자가 “두 번째 동물”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동물”의 상징이 “제국”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동물은 바벨론에 이어 두 번째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동물”은 그 뒤를 잇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미 다니엘의 예언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의 뒤를 잇는 제국은 메대-바사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곰이... 일어서” 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의 “일어나는 것” 은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상승을 상징합니다. 그 예언에서는 곰이 “한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곰은 양면을 갖고 있었지만 선지자는 그것이 그 중 “한 쪽”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이 세부 사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두 민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 줍니다.

곰에게 양면이 있듯이, 제국도 두 민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곰의 각 면은 이들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선지자가 곰이 한쪽 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바벨론을 쳐부수었을 때 그 나라의 정부를 맡은 것은 이 백성들 중 단 “한 사람” 을 대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국.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이 제국을 구성했지만, 이 두 민족 중 한 민족의 대표만이 정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예언의 성취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졌나니 ...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 를 얻었는데, 나이는 예순두 살쯤 되었어요.” 다니엘 5:28-31

메대-바사를 대표하는 다니엘이 본 곰이 한쪽으로 섰습니다. 즉, 한 민족의 대표자 곧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곰 의 입에 “갈비뼈 3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5). 그것은 그가 잡아먹은 동물에 속했다는 인상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언에서 동물이 제국,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따라서 곰의 세 갈빗대는 메대와 바사에게 패할 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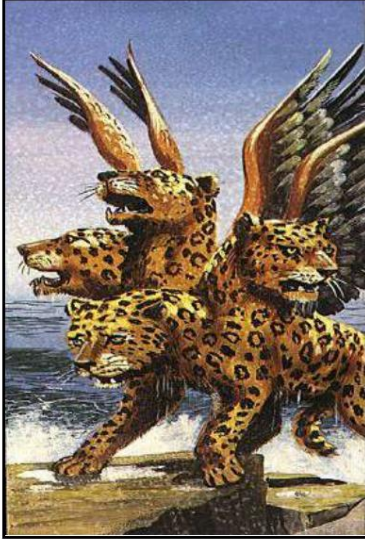
실제로 역사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빌론, 리비아, 이집트라는 세 가지 주요 정복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또한 곰이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라는 말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이 많은 전투를 통해 그들의 지배력을 크게 확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제국의 더 큰 확장은 전쟁을 통해 획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규모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기록을 그분의 말씀에 남겨 두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시대에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가...그의 모든 방백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바사와 메대의 귀족들이 참여하였느니라.” 에스더 1:1, 3

인도와 에티오피아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극단을 대표했습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까지 했다는 성서 기록은 그 영토가 당시에 알려진 세계 전체에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계속 보니 표범과 같은 다른 동물이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네 개가 있고 이 짐승도 머리가 넷이 있어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 7:6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이 7장에서 본 첫째와 둘째 동물이 신상의 처음 두 부분으로 상징된 동일한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동물들의 순서는 다니엘 2장의 신상 부분에 의해 주어진 계시의 순서를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이 7장에서 본 세 번째 동물이 “표범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동상의 세 번째 부분인 청동 배인 그리스로 상징된 동일한 왕국을 나타냅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더 잘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 동상의 일부 - 다니엘 2 | 왕국을 대표함  | 동물 - 다니엘 7장  |
|----------------|----------|--------------|
| 골든 헤드          | 바빌론      | 첫 번째 동물 - 사자 |
| 은빛 가슴과 팔       | 메디아-페르시아 | 두 번째 동물 - 곰  |
| 청동배            | 그리스      | 세 번째 동물 - 표범 |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 주시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메디아-페르시아를 따르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나는 다시 왕자와 싸울 것이다 — 페르시아인의; 내가 나갈 때에 보라, 그리스 왕이 오리라.” 다니엘 10:20

천사는 자신이 “페르시아인”의 왕자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니엘의 마음을 메디아-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페르시아 왕자와 싸운 후 일어날 일을 보고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리스 왕자가 올 것이다.” 그녀는 표범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왕국이다.

다니엘은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 네 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개가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연구했습니다. 표범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범으로 상징되는 왕국, 즉 그리스가 엄청난 속도로 제국 전체를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 장군의 지휘 아래 그리스인들이 약 10년 만에 메디아-페르시아 세계 제국 전체를 정복했음을 보여 줍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이야기는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세부 사항은 하나님이 상징으로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과 같으니라 예언의 정확한 성취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시며, 강력한 손으로 땅의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환상에서는 또한 이 동물이 “머리가 네 개”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제국을 정복한 그리스 장군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정치적 투쟁이 일어났고, 제국은 마침내 4명의 장군에 의해 4개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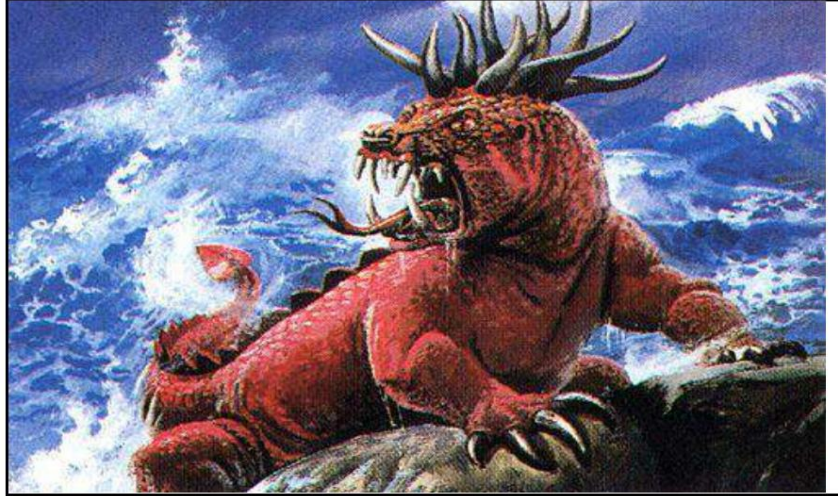
- 카산드로;
- 리시마코스;
- 셀레우코스;
- 프톨레마이오스.

다시 한번, 우리는 상징을 통해 예언된 것이 역사가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표범으로 상징된 왕국에 관해 더 나아가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고 말한 점에 유의하십시오.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에게 메디아-페르시아(그리스)를 따르는 왕국이 큰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할 왕국이라고 직접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모든 것보다 큰 부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로 인해 강해진 그는 그리스 왕국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때에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 11:2, 3

천사는 다니엘에게 “세 왕”이 여전히 일어나서 “페르시아”, 즉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에서 통치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왕은 “그리스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메디아-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벌일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역사는 그리스가 전쟁에서 메디아-페르시아를 격파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전쟁의 승자인 그리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즉 이 전쟁 후에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에 표범으로 대표되는 제국이며, 그에게 “다스림” (다니엘 7:6)이 주어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7장의 비전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계속 밤 이상을 보더니  
넷째 짐승을 보니 무섭고 무섭고 심히 강  
하여서 큰 철 이빨이 있어 먹고 찢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으니 다른 짐승이더라. 그  
앞에 나타난 모든 동물 중에서 그 뿔이 열  
이 있고”

다니엘 7:7

이 네 번째 동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가 본 각각의 동물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세계 권력에서 서로 계승한 세계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동물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제국인 메대-페르시아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디아-페르시아에 이어 그리스를 대표했습니다. 네 번째 동물은 세 번째 동물인 그리스를 뒤따르는 힘을 상징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로마가 그리스를 따랐음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동물의 몸 일부는 우리에게 이를 확증해 줍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철 이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은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다리를 구성하는 재료였으며, 땅에 있을 네 번째 왕국인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넷째 왕국은 철처럼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부수느니라” 다니엘 2:40.

다니엘서 7장에 이어 선지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번째 동물의 상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에 나는 네 번째 동물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고 매우 끔찍하며 그 이빨은 철이고 그 손톱은 구리이며 많은 것을 삼키고 찢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그의 머리에 있는 열 뿔과 또 올라간 다른 뿔에 관하여 말하면 그 세 뿔은 앞에 떨어졌는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오만하게 말하며 그 동료들보다 더 튼튼해 보이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기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느니라.” 다니엘 7:19-22

우리는 네 번째 동물이 이교 로마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짐승에게 보이는 열 뿔과 작은 뿔의 상징의 의미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징적 넷째 짐승에 관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천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읽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이르시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이는 모든 왕국과 다를 것이요. 그는 온 땅을 삼키고 그것을 발로 밟고 찢을 것입니다.” 다니엘 7:23

여호와께서 신상을 통하여 나타내신 나라들의 질서를 따라 다니엘 2장, 왕국의 계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왕국  | 동상의 일부   | 왕국       |
|-----|----------|----------|
| 1위  | 황금 머리    | 바빌론      |
| 2위  | 은빛 가슴과 팔 | 메디아-페르시아 |
| 3번째 | 청동배      | 그리스      |
| 4번째 | 철제 다리    | 석류       |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동물은 땅의 네 번째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천사는 로마 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천사는 네 번째 동물에서 본 뿔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열 뿔은 그 뿔에서 일어날 열 왕을 가리킨다. 왕국” 다니엘 7:24

천사는 열 뿔이 “같은 왕국”, 즉 로마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뿔은 동물이 아직 존재했을 때 동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이미 존재한 후에 권력을 잡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 뿔이 로마가 이미 권력을 잡았을 때 등장할 열 왕국을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역사는 로마 제국이 다음과 같은 10개 야만족의 행동으로 분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야만인    | 현재 이름  |
|--------|--------|
| 앵글로색슨족 | 영어     |
| 알라만노스  | 독일인    |
| 프랭크스   | 프랑스 국민 |

|       |        |
|-------|--------|
| 부르고뉴  | 스위스    |
| 롬바르드족 | 이탈리아인  |
| 서고트족  | 스페인의   |
| 수에비   | 포르투갈 인 |
| 헤룰리   | 멸종된    |
| 파괴자   | 멸종된    |
| 동고트족  | 멸종된    |

이 10지파는 예언대로 로마제국이 존재하던 시절에 일어나 전쟁으로 멸망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이 오늘날 유럽의 알려진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위의 10개 종족 중 현재 3개 종족이 멸종되었습니다: “헤룰리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천사는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 뿔] 뒤에 또 다른 뿔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다. 먼저 세 왕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니엘 7:24

솟아오르는 작은 뿔은 열 뿔로 대표되는 열 사람 중 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날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트족"입니다. 작은 “뿔” 이 상징하는 힘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7장의 기록에 이어, 천사는 이 작은 뿔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 이 뿔이 상징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가장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로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슬프게 하고 때와 율법을 변경시키려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니엘 7:25

뿔은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슬프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중세에 행해진 교수대, 단두대, 기둥과 고문을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황권은 “거룩한 종교 재판”을 통해 성서 연구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가 가르친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는 작은 뿔에 관한 예언, 즉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해친 것”을 성취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뿔피리로 대표되는 힘이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정하신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날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당나귀나 어떤 짐승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것이나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 없게 하여 네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신명기 5:12-14

그러나 교황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인 안식일을 변경하여 그 자리에 “일요일”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일요일이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 변화가 그의 권위의 표시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명령하는 교회의 말에 따르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거룩하게 하지 않는 날인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준수하라고 명령합니다.” (The Faith of Our Fathers,

1892년판의 Gibbons 추기경);

“우리는 라오디게아 공의회(364년)에서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의 엄숙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다.”

(개종자의 가톨릭 교리 교리, Peter Geierman 목사, p. 50 -

세 번째 버전. 참고: 이 작품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비오 10세로부터 사도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은 가톨릭 제도이며 그 준수는 가톨릭 원칙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마지막 날부터 첫날까지 주간 공중 예배의 변경을 승인하는 단 하나의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Catholic Press, 호주 시드니, 1900년 8월 25일)

교황권은 또한 달력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리며, 교황 그레고리오의 요청으로 만들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가 채택한 율리우스력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황권은 “때와 율법을 변경하는” “작은 뿔”에 해당합니다.

천사는 그가 공개적으로 이 세상의 성도들을 죽일 때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높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르리라” 단 7:25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는 표현은 교황권이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일 권한을 갖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제공한 “시간” 기간을 더하면 다음 계산에 도달합니다.

- 1회;
  - 2박자 및 • ½박
- 자

총 3회 반(3.5회)입니다. 언제까지라는 뜻인가요? 다니엘서 자체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방 왕이 돌아와서 처음보다 더 많은 무리를 들에 투입할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곧 큰 군대를 거느리고 급히 올 것임이니라.”  
다니엘 11:13

" 시간 "은 "연도" 와 동일합니다 .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서 천사가 보고한 세 때 반은 삼년 반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의 1년은 평균 360일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보고한 3년 반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360\text{일} \times 3\text{년} = 1,080\text{일}$ |
| $360\text{일} \times \frac{1}{2} = 180\text{일}$ |
| $1080\text{일} + 180\text{일} = 1,260\text{일}$   |

1년이 360일인 것을 고려하면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에서 각 사람이 일은 특정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34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일로 하루가 일년 아니라 너희가 사십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가 나의 불쾌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14:34

인용된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서 천사가 준 3년 반, 즉 1,260일은 사실상 1,260년(1,260일 = 1,260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1,260년 동안 교황권에 넘겨질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이 정확히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서기 538년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으로 로마 주교는 교회의 최대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때부터 교황권은 가톨릭 국가들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패권에 반대하는 민족인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트족을 멸망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패배하고 멸망하여 다니엘 7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교황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패권은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군대의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투옥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역사 자료에서는 이 교황이 몇 달 후에 참수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의 세속적 권세가 끝났습니다. 교황의 패권이 시작된 해인 서기 538년부터 교황 비오 6세가 투옥되고 그의 속권이 끊어진 1798년까지 다니엘서 7장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정확히 1,260년이 지났습니다.

1,260년간의 교황권

|-----|  
538 1798  
교황 비오 6세의 칙령  
유스티니아누스는 투옥되고 참수당했다.

천사는 또한 교황이 패권을 잡은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법정이 앞서서 그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키고 끝까지 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의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26

교황권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1,260년의 끝에, “재판”은 교황권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 자리를 잡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황권의 현세적 지배권이 1798년에 빼앗긴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법정이 교황권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열릴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황권의 지배권이 빼앗긴 해와 같은 해에 있음을 봅니다. 1798년에 빼앗겼습니다. 이곳은 어느 법정이었고,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보니, 보라,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 첫째 뿔 중 세 개가 뽑혀 있었습니다.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과 오만한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 나는 계속해서 보좌를 놓았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왕좌는 불꽃이었고 그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불의 강이 흘러나왔으니 수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법정이 자리를 잡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 뿔피리의 무례한 말소리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몸은 분해되어 불에 태워졌더라. 다른 동물들은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니엘 7:8-12

이전 구절에서 다니엘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뿔의 행동을 보고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첫 번째 뿔 중 셋이 뽑혔” 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교황권을 상징하는 이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뿔로 대표되는 이 권세가 사람, 즉 머리, 이 경우에는 교황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오만한 말을 하는 입을 가졌”는데, 이는 교황권이 오만하게, 즉 하나님을 향해 뻔뻔스럽게 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정하신 시간을 바꾸려고 하심으로써,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인 율법의 넷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적 환상을 통해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최상권 기간 동안 교황권이 수행한 행동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는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앉으시기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영형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의 불이요” 다니엘 7:10

분명히 이 장면은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불꽃으로 만든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불 보좌 위에는 다른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고대 시절”.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의 강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법정이 자리를 잡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 7:10

그러면 뿔이 하늘에 앉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나는 그 뿔이 말하는 불순한 소리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몸은 분해되어 불에 태워졌더라. 다른 동물들은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니엘 7:11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한 말을 한 뿔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지켜보면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잘려 불사르게 내어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동물에게서는 교황권을 상징하는 뿔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 동물의 죽음은 1798년 교황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해에 교황 비오 6세가 체포되어 현세 권력을 상실하면서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예언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들의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을 대표하는 곰; 그리고 그리스를 대표하는 표범. 교황권이 권력을 잃었을 때(1798년), 그는 사람들이 다른 동물로 대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인,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은 더 이상 지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배권을 그들에게서 빼앗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것을 보고 “한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빌로니아인,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대제국이 가졌던 세계 지배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유래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빌로니아인: 이라크
-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 이란
- 그리스인: 그리스

이들 국가는 고대 민족과 동일한 지리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98년에 교황의 최상권이 끝난 후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까? 영형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게로 와서 그를 자기에게로 인도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고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3, 14

교황의 패권이 끝났을 때 인자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게 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자가 예수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출애굽기: 마 16:28; 막 8:38). 다니엘은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르실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지요, 예수의 아버지이시니라. 다니엘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오시면 “주권과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서 받으시리니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날, 1798년 이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교황권은 세속적 지배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예수께서 왕국을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본 때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가 본즉 예수께서 나라를 얻으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사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의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27

앞 절은 예수께서 왕국을 받으시자마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만국의 위엄”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분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백성”이라는 구절에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 7장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받으러 가셨고, 그 왕국을 그분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러 곧 오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798년 이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 아버지 보좌 옆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오기 전에 끝내야 할 일이 있나요? 우리는 다음 장의 다니엘 8장 연구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3 장

### 다니엘 8장 - 숫양과 염소와 작은 뿔

7장에 기록된 계시는 벨사살의 첫째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눈앞에 꿈과 이상을 받고”( 단 7:1). 8장의 내용은 약 2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나 다니엘이 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니엘 8:1

그는 8장에 보고된 환상이 “내가 처음 본 것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환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8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올래 강 가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8:2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수산” 성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상의 다른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분의 영감을 받아 “내가 수산 성에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를 “수산 성”이라는 이곳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제삼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단 8:1). 다니엘은 바빌론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그를 “수산 성”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메대-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도성 수산에서 나라 위에 앉을 때에 그 모든 고관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바사와 메대의 귀족들이 참여하였느니라. , 그리고 지방의 귀족들과 방백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 1:2-3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보좌는 ‘수산성’에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제삼년”, 즉 바벨론이 아직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이상을 보았으나 이상 중에 다음 제국의 왕이 다스리는 “수산”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다 - 메대-페르시아. 하나님은 그를 다음 제국인 메대-바사 시대로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가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은 다 길었는데 그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라.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맨 마지막에 올라갔어.” 다니엘 8:3

나중에 8장에서 천사는 숫양과 그 뿔의 의미를 밝힙니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니라.” \_\_\_\_\_  
다니엘 8:20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숫양은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두 뿔이 높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더라.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맨 마지막에 올라갔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왕국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 가운데 가장 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즉 그는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민족 중 어느 민족이 왕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최초로 황제로서 대표자를 두는 것: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 그는 예순두 살쯤 되었을 때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다니엘 5:30, 31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큰 뿔이 맨 나중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페르시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자체에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모든 것보다 큰 부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로 인해 강해진 그는 그리스 왕국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때에 한 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통치하리니” 다니엘 11:2, 3

인용된 성구에서 천사는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마지막 왕들에 관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는 127도를 다스릴 정도로 큰 왕국을 가진 바사 왕이었습니다(에 1:1).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8장을 읽습니다.

“나는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동물도 그를 저항할 수 없었고 그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위대하게 되었느니라.” 다니엘 8:4

메디아-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숫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쳤 습니다”. 이 구타는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 벌인 군사 작전을 상징합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도 광범위해서 서쪽으로는 그리스 한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용된 구절에 따르면, 아하수어로 왕 시대에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은 아시아의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계속에서 다니엘은 숫양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 중 누구도 그를 저항할 수 없었고, 그의 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국가, 왕국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은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그들의 군대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제국을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까지 확장하려는 군사 작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8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온 땅을 가로질러 왔지만 땅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 염소는 눈 사이에 눈에 띄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강가에서 본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나아갔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이 오다가 그에게 노하여 그를 쳐서 그의 두 뿔을 부러뜨렸으니 이는 그 숫양이 그를 대항할 힘이 없음이라. 그러자 염소가 그를 땅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짓밟았는데, 그 숫양을 그 세력에서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8:5-7

이전 구절에서는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사이에 뚜렷한 뿔이 있는” 염소로 대표되는 한 민족이 메디아-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숫양에게 와서 “쳐서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나중에 8장에서 천사는 염소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눈에 띄는 뿔을 상징하는지 직접 밝혔습니다.

“털이 많은 염소는 그리스의 왕입니다. 두 눈 사이의 큰 뿔이 첫째 왕이니라” 다니엘 8:21

역사는 그리스가 메디아-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스 장군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군대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인 그는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눈에 띄는 뿔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보았다

염소가 숫양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 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가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을 구성했던 두 민족, 즉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을 모두 패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8장의 기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염소는 위대해졌습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주목할만한 네 뿔이 하늘 사방 바람을 향해 나더라.” 다니엘 8:8

몇 구절 뒤에 있는 같은 장에서 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넷이 일어섰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서 네 왕국이 일어날 것임이나라. 그러나 그 세력은 그와 같지 못하리라.” 다니엘 8:22

우리는 이미 이 뿔이 알렉산더 대왕 장군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33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제국은 네 명의 그리스 장군(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 각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네 뿔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영토는 4개로 나누어졌고, 4명의 장군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 세기 전에 바벨론 왕 벨사살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정확한 성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시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예언된 내용이 과거 역사에서 충실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해 예언된 내용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8장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강하여졌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닿을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는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던져 발로 짓밟았습니다.” 다니엘 8:9, 10

우리는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인 "그 중 하나에서"를 제시합니다. 현재 가장 현대적인 성경은 "뿔 중 하나에서"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원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 외에도 해석의 오류를 초래합니다. 스페인어 번역판인 레이나 발레라 성경(Reina Valera Bible)에 나오는 것처럼 원문에는 “그들 중 하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이전 구절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나요? “하늘 사방으로” (8절). 9절이 “그 중 한 바람”으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네 바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음을 반복합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남쪽.” 역대상 9:24

“그 중 한 쪽에서 작은 뿔이 나더라” (9절), 즉 한 방향(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과 7장에 설명된 환상을 연결하여 8장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니엘 8:1). 8장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연구할 때, 그것이 7장의 환상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선지자가 본 첫째와 둘째 동물(숫양과 염소)은 메디아-페르시아의 영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 7장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상징하는 동물들도 보여 주셨습니다. 8장은 7장의 계시의 의미를 반복하고 확장한 것이 분명하다. 사실 7장의 계시를 다음과 비교해 보면

2장의 계시에서 우리는 7장에서 본 동물을 통해 주어진 계시가 다니엘 2장의 신상을 통해 주어진 동일한 계시를 반복하면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를 강조하고 확장하기 위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 왕국                    | 다니엘 2                  | 다니엘 7장 |
|-----------------------|------------------------|--------|
| 바빌론                   | 황금 머리                  | 사자     |
| 메디아-페르시아              | 은빛 가슴과 팔               | 곰      |
| 그리스                   | 청동색 배와 엉덩이             | 표범     |
| 석류                    | 철 다리                   | 끔찍한 동물 |
| 분열된 왕국                |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열 발가락이 있고 | 열 개의 뿔 |
| 교황의 패권: 538 - 1798 AD |                        | 작은 뿔   |

도표 - 다니엘 2장과 7장의 다른 상징들은 동일한 계시를 가져온다.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 2장의 계시가 반복되고 상세하다.

| 왕국       | 다니엘 7장 | 다니엘 8장         |
|----------|--------|----------------|
| 메디아-페르시아 | 곰      |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  |
| 그리스      | 표범     | 눈에 띄는 뿔을 가진 염소 |

표 - 다니엘 7장과 8장의 상징은 동일한 계시를 가져온다. 다니엘 8장에서는 7장의 계시가 반복되고 상세하다.

8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그 중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을 보았습니다. 지구의 방향. 7장에는 이미 작은 뿔의 상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보니, 보라,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 첫째 뿔 중 세 개가 뽑혀 있었습니다.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과 오만한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으니” 다니엘 7:8, 21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이 교황권임을 보았습니다. 작은 뿔의 상징은 다니엘 8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상징이 같으면 의미도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장에서는 그의 작업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군대의 왕에게까지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분에게서 영원한 것을 거두시매 그분의 성소가 헐렸습니다.” 다니엘 8:11

다니엘은 작은 뿔이 “만군의 왕에게까지”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서는 이 왕자가 누구인지 밝혀 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기슭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한 사람이 이 손에 벌거벗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와 군대의 대장이며 방금 왔습니다.” 여호수아 5:13, 14

사도행전에는 하늘의 왕자라는 칭호를 지닌 분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 왕 과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5:30, 31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군대의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군대 대장”, 즉 예수까지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역사는 교황이 교황관에 라틴어로 쓰여진 자신의 칭호를 취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비카리브스 |  |  |  |  |  |  | 필리 |  |  |  |  | 데이 |  |  |
|-------|--|--|--|--|--|--|----|--|--|--|--|----|--|--|

|     |  |     |  |    |
|-----|--|-----|--|----|
| 대리자 |  | 아들의 |  | 신의 |
|-----|--|-----|--|----|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라는 칭호를 취하는 것은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작은 뿔이 “그에게서”, 곧 “끊임없는 자” 이신 예수님에게서 빼앗았다고 까지 말합니다. 최신 버전의 성경에는 “지속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ontinuous”라는 단어만 포함하는 가장 충실한 번역을 제시합니다 . 교황이 취한 이 “지속적” 이란 무엇이었습니까 ? '지속적' 이라는 단어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선은 중단되지 않은 선입니다. 중단되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연속적인”이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하신 것 입니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영속하며 영원히 지속될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는 옛세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상쾌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31:16, 17

우리는 교황권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 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세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12-14. 그러나 가톨릭 교리문답에서는 “주일과 축일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황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속체”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주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교황권이 바꾸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꿀 권세가 없음이니라.

| 남자의 법칙                     | 하나님의 율법 - 출애굽기 20:3-17   |
|----------------------------|--|
|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 둘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 2)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 3) 일요일과 축일을 지키라.           |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
| 4)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밖에 있는 자는 아무 일도 해서 안 된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
| 5) 살인하지 마세요.               |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 6) 순결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7) | 6) 살인하지 말라. 7)   |
| 도둑질하지 마세                   |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  |
| 요.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 하지 말라. 9) 네 이  |
| 9)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 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                   |  |
|-------------------|--|
| 10)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당나귀나 네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
|-------------------|--|

아직도 작은 뿔, 즉 교황권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그의 성소의 처소”, 즉 “군대 대장” 이신 예수 의 성소가 “헐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소는 어디에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줍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의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워졌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8:1, 2, 9:24

---

예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에서 작은 뿔이 “그의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교황권이 하늘에 가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황권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교회와 종파에서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황권의 노력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진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성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말하는 자에게 이르되, 성소 와 군대가 넘겨져 발로 짓밟히는 , 계속적이고 파괴적인 범죄 의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입니까 ?” 다니엘 8:13

다니엘은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성소가 넘겨져 짓밟힐 때까지”, 즉 성소의 진리가 잊혀질 때까지를 묻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천 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그리고 성소는 정화됐다.” 다니엘 8:14

2,300번의 저녁과 아침의 기간이 끝나면 이 진리가 다시 연구되고 재확립되고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은 성소의 교리가 더 이상 잊혀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설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와 오전의 2,300일의 기간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중보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일은 2,300저녁과 아침의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날 유일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보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천 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2,300번의 저녁과 아침이 끝나면 “성소”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 이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이전 구절들에서 언급된 성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00주야가 끝난 후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 성소는 깨끗해져야 합니까?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죄"입니다. 죄는 하늘 성소를 더럽히나니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거기서 없어지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늘 성소 안의 한 곳으로.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은 이러한 죄가 영원히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정결"이 수행될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 때 성소를 더럽히는 죄들이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결의 역사가 끝나면 성소는 온전히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더 많은 죄를 성소로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확실히. 그렇게 하면 성소가 다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대, 즉 회개와 믿음과 자백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그들의 죄가 지워질 수 있는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300일의 오후와 아침의 기간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는 진리가 더 이상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정결케 하는 일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 일이 완료된 후에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시간이 이미 이루어졌듯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날. 예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하늘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성소의 죄 정결이 완성되면 더 이상 천국에 보낼 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중보가 없기 때문에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서 주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이 일을 하도록 합시다.

## 제4장

### 2,300일 오후와 오전

이전 장에서는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하늘 성소의 진리가 언제까지 밝혀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천 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그리고 성소는  
정화됐다.” 다니엘 8:14

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이 우리를 계몽하도록 합시다.  
먼저,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5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은 하루를 가리킨다. 낮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어둠 또는 "오후" 와 빛 - "아침". 그러므로 “2,300주야”는 2,300일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도록 합시다. 성경 민수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사십일로 하니 하루가 하루가 됨이니라 하면 네가 사십년 동안 네 죄악을 담당하리라” (민 14:34)

---

매일은 1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8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에서 2,300일은 2,300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2,300년까지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말했어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라. 그러나 당신은 비전을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매우 먼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 다니엘은 몸이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왕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8:26, 27

다니엘에 따르면, 천사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8장의 마지막 절(26, 27절)에서 이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천사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여라. 이 환상은 아직 먼 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2,300주야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것 이후에.” 다니엘 8:1. 벨사살은 약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는 예순두 살쯤 되었는데,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다니엘 5:30, 31. 그때 다니엘은 다시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매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내가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그를 구하려고 하였더니... 내 환상 속에 그것은 처음에는 빨리 날아와서 오후 제사 드릴 때에 나에게 닿았느니라. 그는 나에게 가르치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왔다. 너희가 처음부터 간구할 때에 명령이 이르렀으므로 내가 이를 너희에게 알리러 왔노니 이는 너희가 큰 사랑을 받은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그 점을 고려하고 비전을 이해하십시오.” 다니엘 9:1-3, 20-23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비전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전? 분명히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그가 말한 것은 단 한 권뿐입니다.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도다”( 다니엘 8:27). 2,300일의 오후와 오전입니다. 가브리엘은 2,300주야와 아침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9장의 본문 다음에 천사의 설명을 발견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서 칠십 이레가 끊어졌느니라.”  
다니엘 9:24

가장 현대적인 성경 번역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절에 “끊어짐” 대신 “결정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본에 가장 충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텍스트에는 “cut”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300개의 낮과 아침이 2,300년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기간에서 70주가 “끊어졌다”고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매주는 7일입니다. 따라서 70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70\text{주} \times 7\text{일} = 490\text{일}$ $490\text{일} = 490\text{년} \text{ (1일은 1년을 나타냄)}$ |
|---|

예언에서는 2,300년 중 490년이 끊어질 것입니다. 왜 그들은 헤어질까요? 천사는 “네 백성의 기한이 칠십 이레니” (다니엘 9:24)라고 말했습니다. 이 70이레(490년)로 대표되는 기간은 다니엘의 백성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성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들에 속해 있었는지 알려 줍니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으로 가서 고하되 내가 유다 포로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그 해석을 왕께 보이리이다.” 다니엘 2:25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70이레(490년)가 다니엘의 백성에게 나누어졌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70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천사는 또한 다니엘에게 70주가 끊어졌거나 “네 거룩한 성”에서 나누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도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느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열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으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 하니 그 중에 아들들이 있더라 유다 지파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다니엘 1:1-3, 6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도시였습니다. 당신의 성자에 관해서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70주일이 “성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기간(490년)이 예루살렘에서 정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여 줄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490년은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70주가 2,300년 안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처음에, 중간에, 아니면 마지막에? 천사는 방금 “칠십 이레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일이 2,300일의 끝이나 중간에 시작될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 2,300일의 시작 부분에 시작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임라인 형태로 표현하면 70이레(490년)와 2,300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게 됩니다.



70이레는 2,30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25절에 나오는 천사의 설명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알고 이해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반차가 나갈 때부터 기름부음받은 자 곧 왕까지 일곱 주와 육십이 주 동안이나. 광장과 우회도로는 재건될 것이지만, 고난의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9:25

언급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천사가 예언의 시기를 계산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계산이 시작될 사건을 밝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라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출발점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건이고, 천사가 2,300 저녁과 아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2,300 저녁과 아침을 계산하는 출발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70이레를 70주 동안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2,300일은 오후와 오전이며, 이것이 천사가 알려준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2,300년 계산과 70이레(490년) 계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 명령은 언제 발부되었습니까?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그 사본을 발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만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학사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천국의: 완 벽한 평화! 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한다고 내가 명하였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알아보라 왕과 일곱 모사에게 명령을 받았나니 그리고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은금과 또 너희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는 은금과 및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취하고자 하였느니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 값없이 드리는 바니라.”

에스라 7:11-16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조사'라는 단어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이 법령에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며 자 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정부를 “수복” 시켰습니다.

이 날짜에는 이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권한을 부여하는 두 가지 법령이 고레스와 다리우스 황제로부터 공포되었습니다(에스라 1:1-4; 6:1, 14; 6-8). 그러나 누구도 정부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명령 즉 법령이 “복원하고 건축”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다니엘 9:25). 단순히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만으로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부도 '복원' 하라는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예언에서 예언한 때를 세기 시작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시대에 “정권을 회복”하고 또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위의 조서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과 일곱 고문의 명령을 받았으니...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는 은금과 및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도 가져오라.”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건축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 외에 당신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의 창고에서 내십시오.” 에스라 7:20.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그 성의 일부였으므로 그 집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성취될 때부터 예언의 세기가 시작되었다. 역사에 따르면 이 일이 기원전 457년에 일어났으므로 그 해부터 오후와 오전이 2,300일이 시작되었고, 70일이 시작되었다.

주:



우리는 다니엘 9:25에 있는 천사의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알고 이해하라: 복원하고 건설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것부터  
예루살렘은 기름부음받은 자와 통치자에게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안겨 주리라.”  
다니엘 9:25

천사는 우리가 기원전 457년으로 알고 있는 이 출발점 “부터 ” “기름부음받은 자 곧 왕  
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군대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기름부음받은 자”라는 두 번째 칭호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다. “기름부음을 받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람  
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천사는 예수를 기름부음받은 자로 언급함으로써 예언에 명시된 때에  
예수가 “기름부음받은 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기름부음받은 자”라고 불릴 수 있음을 우리  
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지시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는 말했다:

“반열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칠 이레와 육십이 이레 동안이니라”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의 기간은 일곱 이레의 합과 같으니라  
주 + 62주:

$$7\text{주} + 62\text{주} = 69\text{주}$$

매주 7일이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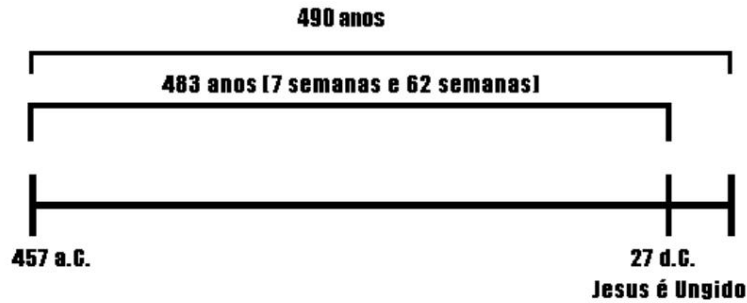
$$69\text{주} \times 7\text{일} = 483\text{일}$$

우리는 예언의 하루가 1년과 같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483일  
483년에 해당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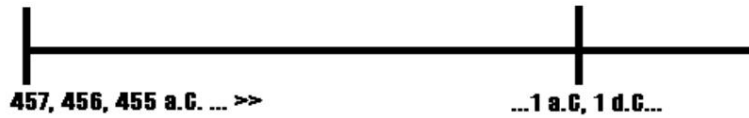
“반열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칠 이레와 육십이 이레 동  
안이니라”

출발점인 "명령의 출발"은 기원전 457년에 해당합니다.

천사는 그 해부터 계산하여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까지”, 즉 예수께서 기름부음받은 때까지 이르려면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83년. 천사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기원전 457년부터 483년을 앞당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래프에는 "0" 연도가 없습니다.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전 1년이 될 때까지 연수는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이후 1년이 됩니다. 기원전 457년에서 483년 전진할 때 올바른 연도를 얻으려면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원전 457년에서 457년을 앞당기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begin{array}{r} 457 \\ - 457 \\ \hline 000 \end{array}$$

계산 결과는 0이 되겠지만, 0년이 없기 때문에 457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기 1년(그리스도 다음 “1”년)이 됩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483년 중 457년을 앞당겼다면, 483년이 끝나려면 여전히 483-457년을 앞당겨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begin{array}{r} 483 \\ - 457 \\ \hline 026\text{년} \end{array}$$

우리는 이미 457년을 앞당겨 1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해(1년)로부터 26년을 더 앞당겨 483년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text{서기 1년} + 26\text{년} = \text{서기 27년}$$



그런 다음 우리는 483년을 더 나아가 서기 27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조직이 떠난 때부터", 즉 기원전 457년부터 "기름부음받은 왕자"가 나올 때 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되십시오 (다니엘 9:25). 천사가 준 기간은 주후 27년에 끝났고, 그 해에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즉 483년이 완성될 것입니다. 천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왕이신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서기 27년에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를 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니라” 마태복음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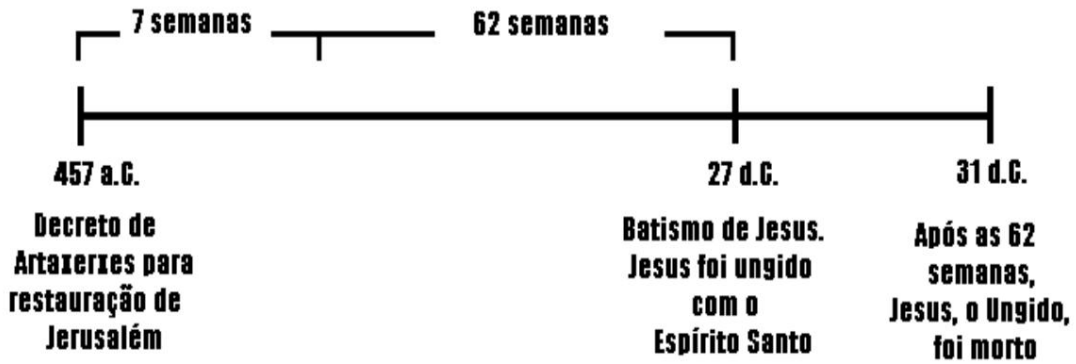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천사의 설명에 대한 분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2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9:26

우리는 이 기름부음받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6절에서 천사가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라는 전체 기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62주 후"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62이레는 25절에서 천사가 준 기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 7주 및 (2) 6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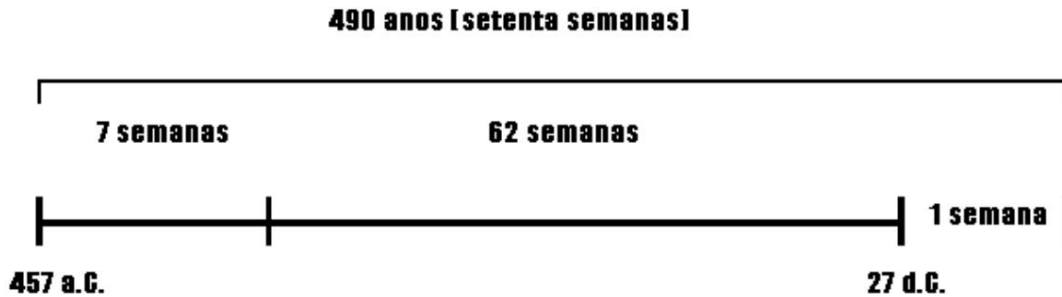
“육십이 이레” 는 지정된 기간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합니다. 62이레는 “7이레 62이레”의 기간이 끝났을 때, 즉 서기 27년에 끝났습니다. 천사는 62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서기 27년 후에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께서 서기 31년에 죽으셨다고 보고하므로 서기 27년 이후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건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주 중반에 그럴 거예요. 제사와 소제를 그치고” 다니엘 9:27

천사는 몇 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70주 중 그는 이미 7 + 62 = 69주를 논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70번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7주 + 62주 기간이 끝나면 70주를 완료하는 데 1주일의 남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마지막 주에 예언이 성취될 사건에 대한 설명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주간 동안 굳건한 언약을 세우시리라” 다니엘 9:27

70년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서기 27년에 시작됩니다. 일주일의 7일이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예언에서 그것은 7년에 해당합니다. 역사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유대인들의 영향력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는 정확히 7년이 지난 서기 34년까지 계속되었고, 올해 경건한 유대 기독교인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테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런 다음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잠들었으니...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행전 7:58, 60, 8: 1, 4

스데반이 살해된 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 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형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어진” 70주가 끝났습니다.

스데반의 살해는 7년 기간, 즉 천사가 예수께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한 주간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주간 동안 굳건한 언약을 세우시리라” 다니엘 9:27

예수님께서 AD 27년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스데반을 죽인 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추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은 이번 주 말(서기 27년 + 7년 = 서기 3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70주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소제를 그치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9:27

“이래의 중간에”, 즉 7년의 중간에 “제사가 그칠 것”입니다. 7년의 절반은 3년 반이다. 우리는 이미 이번 주가 서기 27년에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3년 반을 더하면 서기 31년이 됩니다. 역사는 이 해가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해라고 알려 줍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예언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때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준 “주의 절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어떻게 “희생을 그쳤”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 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어떤 구원의 효능도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참 제단에 희생되러 오실 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모든 제사와 속죄제는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기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희생된 동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를 통해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로다” 요한복음 1:29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참된 희생이 행해졌습니다. 참된 희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죄 용서를 위해 동물을 계속 희생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더 이상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데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소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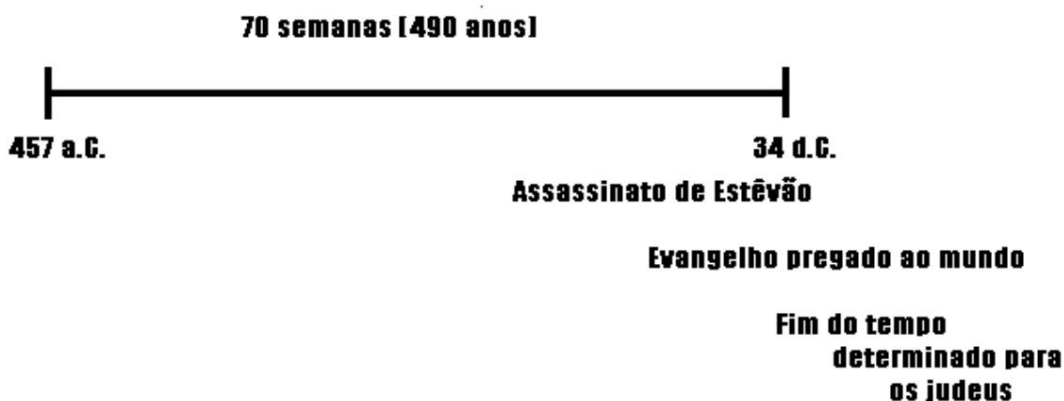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50, 51

그 작업은 초자연적이어서 약 5미터 높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휘장은 죄인들이 제사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곳이었습니 다. 휘장이 찢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행해진 동물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봉사도 그치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로 대체될 것입니다(히브리서 8:1, 2).

다니엘 9장 27절에서 천사는 선지자에게 같은 날, “그 주의 중간”에 예수께서 “소제”를 그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물은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항상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밀가루 나 밀가루 케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것은 죄 없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가루는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만든 것으로 우리 죄악을 위하여 가루가 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사 53:5).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상징적인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음식 제사도 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실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미리 아시고, 이 복된 일이 언제 이루어 질 것인지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예언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70주 끝에 이스라엘은 스테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설교자들을 추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제안하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실 물리적 장소가 영원히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34년 이후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지 말자. 사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롬 9:6,7)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7

“그는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는 속에 있는 것이라” 로마서 2:28, 29

다니엘 9장 24절에서 천사는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 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범법함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 9:24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칠십 이레가 끝날 때 그들의 범죄가 그치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대신에 그들의 죄를 쌓아 그리스도와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비록 배척한 자들의 삶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그쳐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로마서 3:30). 유대인인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9-11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주일을 설명하는 내용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2,300년의 첫 부분인 “칠십 이레”. 우리는 70주와 2,300년의 시간표를 함께 포함하는 그래프 아래에 다시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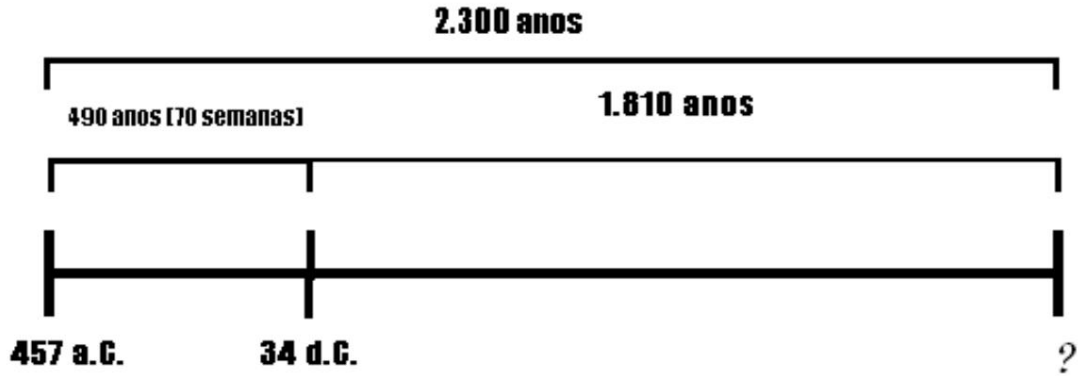


70주를 공부하면 이미 490년이 앞섰으니, 2,300년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490년이 끝나는 날짜에 더하면 된다.

|  |
|--|
| $\begin{array}{r} 2300 \\ - 490 \end{array}$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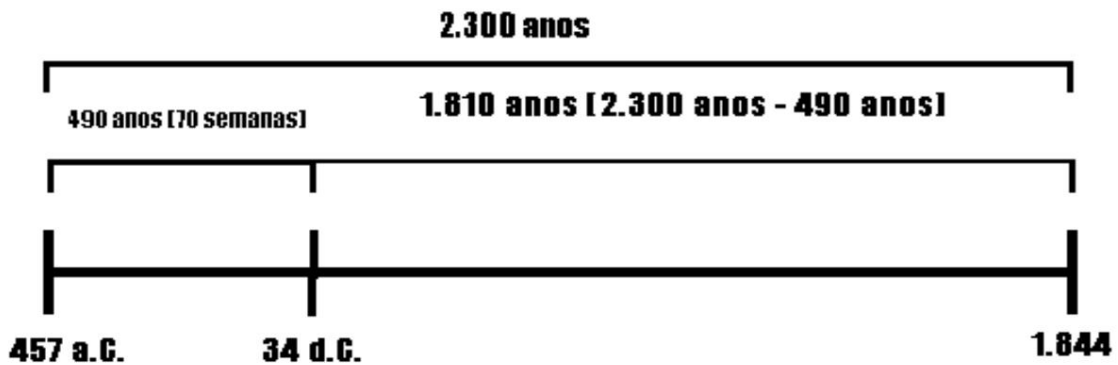
1810년

2,300년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 70년  
이래는 490년이고 남은 기간은 1810년이다.



그 신호 위 그래프에서 예언이 예언한 기간이 끝나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이를 알려면 490년이 끝난 연도(위 그래프에 따르면 서기 34년)를 2,300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연수에 더하면 됩니다. 수학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egin{array}{r} 0034 \text{ 서기} \\ + 1810 \text{ 년} \\ \hline 1844 \text{ 라. W.} \end{array}$$



2,300주야의 예언은 1844년을 가리킨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4)고 했습니다. 어느 성소? 다니엘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곳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성소임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곳이요 하늘에 있는 곳이라 (히브리서 8:1, 2; 9:24) 무엇이 하늘 성소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죄.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희생될 동물에 대하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 이 동물의 피가 성소의 안쪽 휘장(휘장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이 행위는

동물에 대해 자백한 죄는 그 피를 통해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이러한 상징적 이동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소는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된 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하늘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성소에서 행해진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통해 실제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열린 의식들을 보고한 후에 “이것은 현 시대에 대한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9).

하나님께서 2,300주야의 예언을 통해 그 안에 표시된 2,300년이 끝날 때, 즉 우리가 1844년에 도착할 때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1844년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마치실 것인가? 곧. 그리고 그분이 다 마치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다시 성소를 더럽힐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정결하게 되면 하늘 성소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11. 오늘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자백하여 일찍 하나님의 성소로 보내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면 우리는 더 이상 자백할 죄가 없게 되며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되어 증보자 없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정결이 끝날 때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될 한 백성을 이 땅에 두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으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는 자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4:1, 5

---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흠 없는 백성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아멘.

## 제5장

### 요한계시록 13장 - 짐승의 통치

첫 번째 장에서 다니엘 2장의 상징적인 신상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열 손가락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세상을 다스릴 왕들에 해당함을 보았습니다. 묵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상징을 통해 보완적인 계시를 발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1

둘 사이의 대응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다니엘 2장의 신상의 열 손가락; 짐승의 열 뿔. 그러나 계시록 13장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세부점을 언급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몸에는 \_\_\_\_\_  
뿔 열 면류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13:1

왕관은 왕관입니다. 왕이 “왕국”을 받으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왕관을 썼습니다. 요한이 “관을 쓴” 열 뿔을 본 사실은 그들로 대표되는 열 왕이 이미 면류관을 썼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 동일한 짐승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이 추가됩니다. 거기서 천사는 열 왕이 권세를 잡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언합니다.

“저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 주리라.” \_\_\_\_\_  
요한계시록 17:13

인용된 구절은 열왕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줌으로써 그가 세계적인 권세를 받아 온 땅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3:2

그 짐승은 “표범, 곰, 사자”라는 세 가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면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레오 - 바빌론;
- 곰 - 메디아-페르시아;
- 표범 - 그리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세 동물은 세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표된 왕국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빌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등 모두가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세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이 이미 땅의 열 왕의 권세를 받은 후였습니다. 2절에서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용, 곧 옛 뱀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_\_\_\_\_  
마귀와 사단을 부르느니라” (계 12:9).

그 짐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 온 땅이 이상히 여기더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

요한은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교황권이므로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지도자인 교황을 대표해야 합니다.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원어에서 "sphazo"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지칭할 때 항상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표현이 나타나는 구절 중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사이와 장로들 사이에 한 분이 계셨느니라. 어린양이 서 있는 것 같으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6

이전 구절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스파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어린양”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문에서 “sphazo”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스파조”(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제시된 사실은 그 머리가 실제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느니라. 온 땅이 놀라서 그 말씀을 따랐느니라 짐승” 요한계시록 13:3

교황이 사망했으며 "부활"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황이 “부활”되는 것을 보면 지구 전체가 놀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3장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13:4

요한은 지상의 주민들이 부활한 교황을 보면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할 분, 즉 사탄 자신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신의 섭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용된 구절은 또한 땅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지구 주민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을 보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요즘 죽음에 관해 말이 많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 수천 권의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론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하신 것으로 입증된 사람이 죽어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부활된” 교황의 말씀을 그들의 질문에 대한 참된 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될까요? 이와 같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지구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을 반대할 권세나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는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 습니다.” 요한계시록 13:5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네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으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모독하 였느니라. 왜 아직도 증인이 필요한가요? 보라, 이제 너희가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느니라.” 마태 복음 26:63-65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 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 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각 교황은 바티칸 왕좌에 앉을 때 이 나라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다음 과 같은 칭호를 갖습니다. “Vicarius Filii Dei”;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함”이다. 사람이 어떻 게 이 직함을 스스로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 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 두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본문에는 “그에게 교만한 말을 할 입을 주어 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단어는 또한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구상의 다른 위 대한 자들보다 자신을 높이실 것이며, 또한 그의 권위가 의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줍니 다. 그는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실 것이다. 예언은 여전히 때를 가리킨다

그 기간 동안 이 교황은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흔두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42개월은 3년 반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마지막 교황의 통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집권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구절들은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요한계시록 13:6

우리는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자 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두는 자는 모독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 하신 것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 “이름” 대신에 무엇인가를 두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면 교황이 그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드셨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 데 강림하여 그와 함께 거기 서셨고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출애굽기 34:1, 4, 5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신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그와 함께 거기 서셨고 그가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니라” (출 34:5)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묵시록으로 돌아가서, 신성 모독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대신에 법을 두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인간의 계명을 두었고, 교리문답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 안에는 넷째 계명 대신에 “일요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출 20:8).

교황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립된 계명에 어긋나는 계명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예언에 나오는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열 왕의 권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정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우리는 또한 그 짐승이 “그의 입을 열어 그 장막을 휘방하더라”는 것을 읽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느니라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8:1, 2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장막을 그 자리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교황들은 그들의 교회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한다. 그들은 또한 사제들을 “제사장”과 중보자라고 부르며,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것에서 사람이 세운 거짓된 것으로 돌리게 합니다. 거짓 성소 예배는 예배자들에게 거룩함이나 안도감을 전달하는 효능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구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은 또한 그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말한 바울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

에베소서 2:4-6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하늘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짐승은 신성모독을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한 사람들을 거짓된 성격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또 그에게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것도 허락되었으니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니라” 요한계시록 13: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교황권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교황권에 충성하는 군대를 통해 교황권은 그분과 그분의 율법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지막 교황이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세력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다. 그 구절은 또한 “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 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공식적으로 설립된 모든 교회를 포함하여 지구 전체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종족이나 방언이나 백성도 그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3:8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모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요한계시록 13:9

앞의 본문은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징은 성서 자체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유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4:35). 비유는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해 신성한 진리가 그에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자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발견할 때, 다음에 말할 내용은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로잡혀 가면 그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칼로 죽이면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10

위의 말씀은 짐승이 권세를 잡으면 박해를 받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용된 말씀은 이 예언에 나타난 때에 짐승의 세력에게 박해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본문에 나오는 대로 “칼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 일 것인가

이거 하는 거야? 핍박하는 세력과 세계 열방의 경찰과 군대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여 사로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들을 포로로 잡는 사람은 “포로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칼로 죽이면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한 자녀들에게 적들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의 성취가 지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짐승이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한 보응은 짐승의 통치 기간인 42개월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이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요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리라” 요한계시록 17:12-14

---

그 짐승은 땅의 왕들의 권세를 받고 그에게 신실한 성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마침내 그에게 패할 것이며 이 일은 42개월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뱀의 뿔과 같은 두 뿔이 있더라. 양고기; 그리고 그는 용처럼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11

선지자는 “다른 짐승”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록 “짐승”이지만 교황과 교황권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짐승”이라는 단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며, 여기서 교회는 땅의 정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을 본 사실은 그가 이와 동일한 성격의 또 다른 세력, 즉 교회가 정부를 이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교회-국가 연합의 결과를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환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요한은 그녀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요한계시록 13:1

이것이 첫 번째 짐승, 즉 교황권입니다. 요한은 그 여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물의 큰 집합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예언에서 물이 모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봅니다.

“네가 본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15

---

요한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짐승이 물이 모인 곳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는 사실은 교황권이 인구가 밀집된 곳, 즉 여러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사는 곳에서 권세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교황권이 유럽의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유럽은 수세기 동안 많은 민족과 국가, 언어가 함께 살아온 대륙으로, 교황권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이미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과 달리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세상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소를 심는 땅이라고 부르는 땅이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 지구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며 바다의 모인 것을 부르시느니라” (창 1:10).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마른 땅을 “땅” 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에서 우리는 물이 모이는 것이 많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을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이라 부르신 마른 땅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많지 않고 인구가 희박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행성에는 수천 년 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였던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등 우리가 "구세계" 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신세계'라 불리는 대륙이 있다. 미국이요. 요한은 그 짐승이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이 많지 않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짐승이 아메리카 대륙 중 한 나라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세부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은 가톨릭 교회와 지상 정부가 연합한 결과였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다른 것” 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지구 정부의 연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교회들과 땅의 정부들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짐승은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국가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륙 내의 비가톨릭 국가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중남미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톨릭 국가로 탄생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간주되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개신교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짐승” 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정부(이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연합하는 것은 다른 “짐승”의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 교회와 미국 정부가 연합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나오는 둘째 짐승의 상징은 이 연합이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곧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짐승은 “어린양의 뿔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처럼 말하였다” (계시록 13:11). 다니엘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뿔”이라는 상징이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염소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했습니다. '다른 짐승' 이라는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은 공화주의 국가이다. 정부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정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이 표현과 예배의 자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뚜렷한 분리로 인해 자유의 땅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국가는 교회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을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미국 정부의 기반이 되는 통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원칙은 '공화주의'로,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족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군주제의 경우. 개신교와 공화주의는 이 나라의 부강과 번영의 비결로서 요한이 본 “다른 짐승”의 두 뿔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그 짐승이 “용처럼 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짐승은 개신교 교회와 미국 정부의 연합으로 대표됩니다. 그녀의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국민은 말할 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은 정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는 '입법 당국'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법률을 정의하고 투표할 때 이 법률은 마치 전체 국가가 한 목소리로 정의된 내용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말”은 입법 당국의 법령입니다. “용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법이 통과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17

용의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분노하여 그들과 싸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과 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감옥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법을 공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신교 교회와 미국 정부의 연합으로 인한 정부 구조는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박해와 죽음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어떤 계명에 반대됩니까? 이 장의 다음 구절을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앞에서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3:12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며, 교황은 권위를 특별히 인정하는 날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 일요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이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 구절은 또한 둘째 짐승이 “그 앞에서”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 투표할 때 교황청 앞에서 투표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거주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을 숭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또 큰 이적을 행하시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3:14

둘째 짐승은 “큰 표징을 행”했습니다. 이 짐승을 구성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대표자들과 교회들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

신호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클래스에 속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4:24

선지자는 정부가 아니라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종교적인 인물들이 큰 표징을 행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계 13:13)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이 상징하는 능력에 협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4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할 표적을 통하여 미국에서 “짐승”이라 불리는 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 즉 이 나라에 사는 자들을 속였습니다. ,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은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미국 주민들을 설득하여 “칼에 상하고 살아난 짐승의 형상”, 즉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 교황권.

과거에 교황권은 어땠나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교회와 지상 정부가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충실한 사본입니다. 짐승의 형상인 교황권은 교회가 정부 세력을 이용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것과 동일한 시스템의 사본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정부군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미국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교황 박해 체제의 복사본이 형성될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될 것이다 .

“또 그에게 허락을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3:15

앞 절에서는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둘째 짐승의 행동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들과 연합한 짐승, 정부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게” 되었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 성경에서 “호흡”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니 그가 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2:7).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받았다는 예언은 미국 정부와 개신교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박해 제도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승리 하기 위한 고대 교황 체제 .

이 구절의 순서는 이것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국에서 짐승이 부과할 일요일 법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옛 교황의 박해 체제에서는 명령이 종교 권력(이 경우에는 교황)으로부터 나왔고 총독들이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 종교권력은 공권력에 성도들을 박해하라고 명령했고, 공권력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말, 즉 교황권의 말은 당시 교황이었던 종교 지도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은 짐승의 신실한 모형이며, 신실한 모형으로서 짐승처럼 기능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말'이 종교 지도자의 명령이었다면, '짐승의 우상의 말'도 종교 지도자의 명령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환상에서 “짐승의 형상”이 말하는 것을 본 사실은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가 정부군이 법의 힘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하도록 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그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이 표나 이름이 있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짐승의 수나 그 이름의 수니라.” 요한계시록 13:16, 17

본문은 계속해서 “다른 짐승”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교회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 작은 자,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에게 “그들 위에 표징”이 놓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둘째 짐승이 위치나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인가를 두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이들 “모두”가 지구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징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본 사실은 그것이 대표하는 세력, 즉 개신교 교회의 영향을 받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밖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라들은 자기 백성이 “표징”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그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으면...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라.” 첫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교황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로 선포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넷째 계명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변화를 허용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그것이 전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달려 있음을 선언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스스로 이것을 선언합니다. 아래 문서의 인용문을 참조하십시오.

“교회가 축제를 계율로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만약 그녀가 그런 권한을 갖지 않았고 모든 현대 종교인들이 그녀에게 동의하는 일을 행할 수 없었다면, 그녀는 주일의 일곱째 날인 토요일 준수를 안식일의 첫날인 일요일 준수로 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에는 경전의 권위가 없습니다.” 교리 교리(가톨릭) 174 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 즉 교황권(그 권위의 표)이 일요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미국 정부가

교회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일요일을 자기 백성을 위한 예배일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절에 따르면, 표시는 “오른손” 이나 “이마”에 놓일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손과 이마에 묶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6,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의 사본을 손과 이마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마' (눈 사이의 앞부분) 에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그것을 일, 즉 실천에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표징'으로 묶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짐승이 역사하여 모든 사람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일요일 준수)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것은 양심을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국가의 힘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일요일을 쉬는 날로 고백하고 이를 지키며 일을 삼가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의 성격을 우리에게 여전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였느니라.  
표징” 요한계시록 13:17

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그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행하는 경제적 금수 조치는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에 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나라 정부는 둘째 짐승으로서 다른 모든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조화를 이루게 하여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을 지키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그러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세계가 이에 굴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성 지구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인 교황을 숭배할 것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은 누가 부활하여 나타나서 온 세상의 존경을 받을 교황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요한계시록 13:17, 18

일부러 17절 끝부분을 인용합니다. 그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 즉 짐승의 이름의 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끝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8절은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떤 숫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 구절에는 “짐승의 이름의 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총명 있는 자”를 부르사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게 하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왜곡하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잘못 계산하여 신성한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이해력”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신명기 4:2, 5, 6

인용된 구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지켜 성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해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이름의 수를 계산하도록 초대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신성한 계시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공개적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세력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목사, 신부, 추기경, 기타 일요일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짐승의 수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것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데리고 갈 것이며, 가능하다면 자신이 선택한 자들도 속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절에서는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여자번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숫자는 여자가 아닌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짐승의 이름의 수이다. 이름을 계산해 보면 육백육십육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교황권이 짐승이라면, 그 짐승의 수는 교황들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언의 사양에 맞는 사람을 교황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짐승의 이름의 수인 “수를 계산하라”고 권유합니다. 각 교황이 바티칸 왕좌에 오르면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티칸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언어에서는 문자가 숫자의 가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에서 말하는 대로 교황 이름의 글자 수를 더하고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3절) 시작 부분에서 요한은 “그의 머리들 중 하나”, 즉 (교황권의)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머리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교황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천사가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이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시 17:9, 10) 교황은 바티칸이 국가가 된 1929년 이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티칸 국가의 주권자”라는 칭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교황이 왕이 되는 군주제 정부체제를 갖춘 나라이다. 예언에 나오는 교황은 1929년부터 오늘날까지 바티칸 왕좌를 차지한 일곱 교황 “왕”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계시록 17:11). Editora Advertência Final에서 출판한 나의 다른 책 “The Last Pope”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의 교황 예언에 대한 심층적이고 자세한 연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교황은 1929년부터 계속해서 교황권을 차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한다.



단어와 문자가 표시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 장의 연구 주제인 요한계시록 14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장과 절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장을 다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주제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한 예를 발견합니다. 성서 기록은 마태복음 5:1부터 7:28까지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상 수훈에 나오는 이 예는 성서의 한 장을 연구할 때 그것이 이전 장에서 제시된 내용의 연속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짐승과 그의 군대와 어린 양과 그의 신실한 자들 사이에 일어날 전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요... 이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와 권세를 주는 권세를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어린양과 맞서 싸우리니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입은 자들과 그와 함께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요한계시록 17:12-14

인용된 본문에서 천사는 왕국을 받을 “열 왕”이 “짐승에게... 그들이 가진 권세를 내”준다고 보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열 왕이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계 17:12) 고 말하듯이, 열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될 때는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이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 관하여는 “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 ” (계 13:7)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과거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당시에 열 왕이 이미 자신들의 권위를 짐승에게 바쳤음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열 왕이 짐승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부여한 후에 그 짐승과 함께 “어린양과 싸울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를 왕들이 이미 짐승에게 그들의 권위를 준 때로 안내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짐승과 땅의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울” 때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언은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리라”(계 17:14).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3:3, 5

앞의 본문은 그 짐승에게 마흔 두 달 동안 계속 일할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 기간 동안 짐승은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줍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여 그의 이름과 성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또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낮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나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소유한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느니라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6, 7, 16, 17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즉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 장에서 짐승의 표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 장에서는 계시록 17장에 예언된 어린양과의 싸움에서 짐승과 그의 동맹자들이 맡게 될 역할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갈등에서 코르데이로의 동맹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어린 양에게 충실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텍스트 다음에 이러한 지침을 찾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1

13, 14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어린 양과 이 싸움에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더라.” (계시록 14:1)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이 본 “어린양”이 예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요한이 환상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린양”을 보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어린양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전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시온 산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산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니” 요한복음 4:20

위의 말은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산”이라는 단어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린 곳인 그리스 산을 가리킨다.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사마리아인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다”는 표현은 같은 교회에 속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양 예수께서 산 위에 나타나시는데,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상에 표시된 때에 이 144,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이들을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본문에서 그러한 추론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44,000명은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운 자들로 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언이 가리키는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 14:1). 본문에 보면 144,000명의 이마에는 어린양 곧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전 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44,000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의 성품을 갖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이 땅에서 죄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앞면" 에 적힌 이름은 "결정"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다. 어떤 사람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둘 다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4,000명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어린 양)의 이름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짐승과 땅의 왕들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본 후에 어린 양과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144,000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짐승과 그의 동맹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요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144,000명은 안식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44,000명은 세상에 어떤 소식을 선포할 것입니까?  
예 당연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계시록 14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으니라. 또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사람이 거문고를 부는 소리 같았도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2, 3

144,000명은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출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홍해를 열어 주시고 애굽 군대에게 닫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분은 말과 그 탄 사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장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15:1, 4, 5

모세도 이곳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에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경험을 예언적 비전으로 묘사했습니다(신명기 32장).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노래는 그 노래를 살았던 사람에게만 온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은 “144,000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그룹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보고했는가? 144,000명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4,000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144,000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짐승과 어린 양의 마지막 전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라...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과 충실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17:14

위에서 언급한 “그와 함께 있는 자”는 144,000 명입니다.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느니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구절에서

그들은 그 짐승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고 짐승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업적이 크고 놀랍습니다! 오 만국의 왕이여, 당신의 길은 공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며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5:2-4

인용된 구절에서 요한은 짐승의 승리자들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 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요한은 144,000명이 부르는 노래가 “거문고 연주자”의 노래와 같다고 보고합니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요한계시록 14:2,3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 2-4절에 기록된 짐승을 이긴 자들의 노래가 144,000 명의 노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144,000명은 짐승의 정복자들입니다. 성서가 밝혀 주는 바에 따르면, 그들이 짐승을 이겼다는 사실은 그들의 경험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께서 “성도” 라고 부르실지라도 짐승에게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또 그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3:3, 7

이 승리는 짐승과 그의 동료들이 주 예수의 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승리는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교황과 그의 배도한 동맹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은 의인의 부활 때에 안식을 취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성도들과는 달리 144,000명을 “짐승의 정복자” 라고 부릅니다. 짐승은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어린 양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세력이기 때문에 144,000명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겪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144,000명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요한은 자신이 들은 144,000명의 노래 소리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14:2

묵시록에서는 또 다른 분이 많은 물의 목소리를 내신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돌아켜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3-15

인용된 구절에서는 “인자”와 같은 분이 많은 물과 같은 음성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구절에 묘사된 인물인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144,000명에게서 들었다고 보고한 음성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요한이 144,000명에게서 들은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로 묘사했다는 사실은 144,000명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보여줍니다. 합창단에서 합창단원들이 노래할 때 서로 하나되어 목소리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144,000명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 사이의 조화는 요한이 영감을 받아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해설하도록 했습니다. 예수와 144,000명의 사람들도 같은 말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과 요한이 본 144,000명의 유사점은 이 144,000명이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144,000명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듣는다는 사실에는 또 다른 상징이 얹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은 “물”이라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 주십니다.

“내가 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15

물은 또한 “나라들과 언어들”을 상징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물 상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요한이 144,000명의 음성을 “많은 물”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실은 이 그룹(144,000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언어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4,000명이 특정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이 다르고, 여러 나라가 살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분과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교주의, 다른 사람들의 방탕주의와 방탕함,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광신주의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나라에서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순결한 성품을 지닌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그의 상황이 너무 낙담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악함과 불법이 가장 극할 때 - 말세에

이 땅의 역사 - 죄가 인간에게 범법의 최대 결과를 부과했을 때, 인류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할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4,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포괄적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를 원하고 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우주에 입증될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를 소유하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결하므로 여자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 곧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계 14:4)

144,000명의 그룹이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는 하늘의 주민들이 이 그룹의 형성을 크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앞 절에서는 144,000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로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즉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전 15:20, 23)라고 말하며, 이는 그 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 144,000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구원의 계획에서 이 그룹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기에 주어진 중요성은 144,000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성품을 형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역사상 최악이었을 때였습니다. 인간 세대가 죄로 인해 가장 약해졌을 때, 모든 조상들이 육체에 대해 보살핌을 베풀지 않은 결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죄가 계속됨으로 인해 가장 약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항하고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세상과 자아와 마귀를 정복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인용된 본문에는 144,000명이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1절을 공부하면서 이 환상이 상징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무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여자로 더럽혀 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남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면서 이미 성경의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창녀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진리를 버리고 사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144,000명이 여자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남자의 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리적으로 순수했습니다. 성경적 신앙의 기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최종 경고 성경 과정, 레벨 II, Editora Final Advertência의 교훈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서에서는 여전히 144,000명의 그룹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4. 이 기능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을 따르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그분께 끊임없이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권고하는 대로(고린도후서 10:5)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러한 교통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분께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의 이름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 지금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느니라.” 묵시  
14:5

그들에게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념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요일 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4,000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거룩함의 표준을 달성했습니다. 본문은 또한 이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그룹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갖게 될 거룩함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황반”이라는 단어는 “얼룩”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습관이 없으며, 그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할 이 선택된 그룹의 모든 특성을 볼 때 누군가는 그 그룹에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27.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 제7장

###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앉은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 계시록 14:6

무언가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면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천사를 본 사실은 이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보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이 가져오는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베드로전서 1:4)가 됩니다. 즉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인용된 구절은 또한 천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앉은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싸우는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요한이 본 천사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환상은 계시록의 다른 환상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입니다. 무엇

천사를 표현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13, 14.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를 “천사” 처럼 영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전파한 메시지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천사”, 즉 메신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한 무리의 인간 사자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방금 요한에게 소개된 무리는 앞 절에서 144,000명의 무리이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과 비슷한 성품을 지닌 144,000명의 무리가 천사로 대표되는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9 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7

이 구절은 사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루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하니” 누가복음 1:41, 42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천사는 성령 충만하여 말할 144,000명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벳의 예로 돌아가서, 본문에는 그녀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얼마 후에 큰 소리로 외쳤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자마자 “큰 소리로” 외친다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묘사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 대표되는 무리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 우리가 이미 마지막 교황 시대에 144,000명이 설교할 것과 이 왕의 통치가 4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을 보았듯이, 그들이 처음부터 설교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이 천사로 대표되는 144,000명이 전도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본 사실은 그들이 42개월이 시작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약 3년 반인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전파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144,000명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요한은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서 12:13, 14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들은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전도서 12:13, 14

앞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요한계시록 본문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3-17에 나오는 열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롬 13:9)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나” 또한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 14).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때, 계명이 심판의 법칙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들과 비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심판하실 것인가? 전도서는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은밀한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은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눈앞의 것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우리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모두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4).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성경에서. 그분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특정한 음식과 음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21

그리고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소란스러운 음료; 누구든지 그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0:1

우리가 이 조언을 따른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조언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인간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5 (개정 및 업데이트된 알메이다 번역)

생각이 순수하면 사람도 순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3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에 통치하시고 우리 생각의 주제가 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방법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과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3:46, 47

하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심을 알았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에 대해 더 큰 소리를 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시편에는 “그의 계명은 다 의로우시도다”(시 119:17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께서 사람이시며 의로우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사람이신 하나님”이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님)이신 예수님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능력의 도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를 전파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백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12

첫째 천사의 기별은 또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 교황의 통치 후 42개월 이내에 144,000명에 의해 더 큰 능력으로 전달될 것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분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라고 능력있게 설교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판단이었는가?

우리는 다니엘 7장과 8장을 연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에게서 시작되어 산 자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2012년) 우리는 아직 마지막 교황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4,000명이 산 자의 심판이 도래함을 깨닫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계속을 읽어보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7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안에서 그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라.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조.” 창세기 2:2, 3

출애굽기는 계시록처럼 그분을 “하늘과 땅과 바다” 와 심지어 물의 근원의 창시자로 지적합니다.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세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이라.” 출애굽기 20:10, 11

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죄를 지었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7:1, 3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본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명백히 다르게 말하는 다른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잘못 번역되었거나 오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시요,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이것이 영생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당신 과 그가 보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3)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구속주로 예배하지만 아버지를 창조주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창조자?”. 성경은 그분이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또한 만물을 만드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할 때, 본문은 그분을 만물이 만들어지는 도구로 제시합니다. 성서에서는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에게 이르노니 그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라”(행 2:22)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30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신 분은 그분을 통해 행하시는 그분의 아버지였습니다. 능력은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38

엄밀한 의미에서 만물을 만드신 분은 실제로는 하나이셨습니다.

-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은 “행하신 이”를 단수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포함한다면 나는 “그들”을 복수형으로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연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둘째 천사의 소식을 연구하겠습니다.

## 제8장

###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

“또 다른 천사가 뒤따랐는데 둘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맹렬한 포도주로 먹이던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8



인용된 본문은 “다른 천사가 뒤를 따랐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는 기별을 전하는 144,000명을 대표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같은 그룹을 대표하며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연구하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이미 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교회의 어머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톨릭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요한계시록 17:5) “어머니” 교회로 여기기 때문에 “큰 자”라고 불립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떨어졌다”라는 용어는 하나님 보

시기에 타락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한 믿음에서 인간의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의 타락.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창립 이래로 인간의 교리를 전파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인 토요일과 달리 안식일인 일요일이 이 교회의 주요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을 옹호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가능성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이라는 단어는 한때 하나님 앞에 순결했으나 인간의 교리와 지도자들의 불법과 위선으로 부패해졌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모교회가 가르친 인간의 교리를 그들 가운데 유지했던 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모교회의 오류를 유지한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모교회의 “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는 하늘에 의해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구절에는 “Caiu”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 “타락”은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는 영적 딸들, 즉 한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존중했지만 오늘날에는 일요일 준수, 성인 숭배, 이미지 등

“그가 그 음행의 맹렬한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도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여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 17:4). 우리는 이미 여자가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의 남편임을 보았습니다. 여성 매춘의 상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배반하고 영혼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속임수와 연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설정함으로써 가톨릭교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일요일 안식일의 멘토인 사탄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의 환상에서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잔 안에서 요한이 본 음행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 여자가 준 것이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열방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가톨릭교회는 마지막 교황을 통해 모든 나라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제정하게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였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교황권과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의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력한 곳에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은 땅의 열 왕의 권세를 받자마자 성도들과 맞서 싸우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동료들이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또 낮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그 이름의 이름이 있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함이니라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5-17).

계시록 14:8에서 나라들이 매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로 예언된 때에 나라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교황이 말한 것과 똑같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그에게 허락을 받아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왕들은 교황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람들을 교황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일은 일어나기 매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사탄의 정부에 굴복할 때 그들은 매우 잔인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고위 인사들과 세속 권력자들(유대 제사장들과 빌라도)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죽였듯이,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시험의 시기를 견디고 여전히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맹렬한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8

지금까지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제9장

###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섞인 것이 없이 그의 진노의 잔에 의지하여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9-11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게 추가 메시지를 표시한 것처럼, 세 번째 천사는 처음 두 천사에 추가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동일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큰 소리"라는 표현을 다시 발견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사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 “큰 소리”로 말합니다. 텍스트는 발표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는 의미 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다”는 의미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연구에서 다루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는 것은 천주교와 그 교리적으로 그 딸이 된 교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넷째 계명의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신 능력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 즉 하나님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언에 표시된 이 시간에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을 삼가고 일요일이 주님의 참된 날임을 인식할 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은 일요일을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합니다 . 이걸 무슨 와인이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소가 열리니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소에서 나오니라.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5:5-7

묵시록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곱 가지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여 주는데, 이는 “ 일곱 금 대접 ”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인용된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 ”, 남자에 대해. 그리고 일곱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여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잔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 그리고 성소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열방의 성읍들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큰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에게 주시니라 성들은 모두 도망갔고, 산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6:17-21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녀 위에 그분의 진노의 잔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안식의 날이 그리스도교국 전체와 온 세상에 퍼진 사람이 바로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 당시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는 진리에 대해 모든 계층이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바벨론” 교회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로운 가운데 술을 마시리라.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같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성소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더라.” 요한계시록 15:8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징벌하고 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며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에는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슬픔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린 아들에게 눈물을 감추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그분의 자녀에게 그분의 눈물을 숨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앙 중에 죽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히 다시 죽을 자들에 대한 그분의 슬픔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고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는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일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요 5:39).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려 오셨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14:9)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위해 다윗이 애곡하는 것은 반역한 피조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시는 공의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총의 때가 끝날 무렵,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고 교황과 천주교회를 존중하고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멸시하며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마침내 일곱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경고하며 그들이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은 인간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더 나아가 두 번째 위협을 선포합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계 14:10, 11)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일요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언이 지적인 당시에는 두 부류, 즉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위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5, 6. 첫째 부활에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년이 차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계 20:7, 11-13). 천년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해 본문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미 그들은 천년이 되기 전에 부활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심판 장면은 천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악한 자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생명책은 어린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 하더라” 요한계시록 13:8

어린양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생애 동안 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거부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천년 후에 부활하는 악인들은 묵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고 한 바와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

위의 위협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위협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 끝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계 20:13)을 내어주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악인들이 천년 끝에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악인은 두 번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아는 죽음입니다. 그 만큼

둘째, 불뿔으로. 성서에서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뿔”이라고 알려 줍니다.

요한계시록 20:1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계 14:11). 언급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연구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불뿔의 정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마침내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원한 불”, 즉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 연기의 참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타락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7

창세기에는 이 도시들이 받은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느니라. 그 성읍들과 온 들과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그 땅에 난 것을 다 없으시고”( 창 19:25)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멸망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 후에 겪게 될 것과 똑같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 국가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오늘날까지 유황이 농축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수천년 동안 오늘날까지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불은 그 희생자들을 전혀 태우지 않고 영원히, 무한정 계속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멸망시키는 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면 본래 없었던 것과 같으리라(욘 1:16). 그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묵시록에서 악인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고 말한다는 사실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이 꺼진 후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는 그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요한이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 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악한 자들의 멸망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상처받은 몸에 흔적을 남긴 원인으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른 이를 보리라 -

예수님 - 당신의 죄로 인해, 그러면 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4:11.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시 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초대를 인류에게 남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28, 29

---

멍에는 땅에서 일할 때 황소의 목에 얹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걷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해 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이 지침 즉 “멍에”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길로 걷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얻습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지키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멸시하고 범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4:11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삶과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12

그 메시지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는 저희의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13

인용된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예언이 가리키는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라고 하였느니라(계 13:7).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앞 구절에서 이 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선언하셨듯이, 이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떠하든 우리는 굳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Blessed는 '행복하다'라는 뜻이다. 본문은 “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며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박해의 때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주 예수를 믿으며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과 동행함이니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므로써 이 구절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충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상속 받을지 아시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 누가복음 12:4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은 주 예수와 하나님의 율법과 넷째 계명의 제칠일 안식일에 충성을 유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가 충실하게 남아 있기를 바라며, 살든지 죽든지 계속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9.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의 상이 내게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2:12. 아멘, 이제 오세요 주 예수님!